
5 분 자 유 발 언

- 고성군 주요 관광지 내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촉구 -



고성군의회
(이쌍자 의원)

반갑습니다. 이쌍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른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군민의 삶을 세심히 챙기며
의정 활동에 힘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수행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고성군 주요 관광지 내
화장실 시설과 수유실 등
이용 편의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성인지 관점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 사례인 당항포 관광지의 경우,
2024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엑스포 기간을 제외한
총이용객 수는 43,975명이며,

이 중 어린이는 15,816명으로
전체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룡 엑스포 기간인
10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총이용객이 184,051명에 달했고,
이 중 어린이 방문객이 85,497명으로
약 46%이며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항포 관광지에는
총 18곳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남성용 대·소변기는 130개,
여성용은 97개, 장애인용은 28개입니다.

반면, 어린이 전용은 15개에 불과해
실제 이용객 구성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설 부족 문제는
당항포 관광지뿐만 아니라

고성군 내 다수의 관광지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실제 관광객 구성비와
성별 및 연령별 이용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여성과 어린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 주요 관광지 방문객은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단체 방문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객의 특성상
보호자나 인솔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며,
부족한 여성용 및
어린이용 변기 시설로 인해
긴 대기 시간과 혼잡이 발생하고,
어린이들의 심리적 불안과

안전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어린이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한
세면대 시설이 부족하여
적절한 손 씻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세면대 이용을 위해 설치된 발판은
오히려 불편함과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화장실 시설의 경우,
아이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각 관광지의 특색을 반영하여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아동 친화적 시설 조성이 필요합니다.

당항포 관광지의 경우
공룡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수유실 시설 부족과
편의시설 접근성 문제는
더욱 심각한 개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당항포 관광지의 경우 수유실이
입구사무실, 주제관, 월이 주막 광장 등
3곳에 불과하며,
주요 관람 동선 및
방문객 밀집 구역을 고려할 때,
시설 수와 접근성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과 어린이가
관광지 내에서 불편을 겪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공공장소 이용 권리를 제약하고
성별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어
조속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고성군 집행부에서는
성 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고성군 내 주요 관광지 전반에 걸쳐
여성과 어린이 특성을 고려한
화장실 및 수유실 등
편의시설의 확대 및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